



自然公園과 野生鳥〈33〉

## 장다리물떼새

- 학명 *Himantopus h. himantopus*
- 영명 Black-winged Stilt

해마다 겨울철이면 단골로 찾아 다니던 낙동강 하류에서도 하단의 갈대 갯벌에 장다리물떼새 한쌍이 나타났다고 동행했던 일간지 기자에게 호들갑스럽게 제보했던 일들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여년이 지나 버렸다.

원래 이 새는 생김새부터가 특이하여 일반적인 물떼새와는 달리 흑백의 조화로운 채색에 붉게 빛나는 긴다리가 귀티를 풍기는데 우리식 이름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장다리물떼새가 아니라 긴다리물떼새가 옳을

성 싶고 요새 유행어로 부른다면 롱 다리물떼새가 맞을것 같다.

과거 이 새는 겨울철 강 하구 철새 도래지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기록상의 새가 되어 미조(길잃은 새)로 분류해왔다.

그러던 이 새가 3년전부터 즐겨다녔던 충남 서산의 천수만 일대 새로운 겨울철새 도래지에 몇마리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지난 5월 말일께 평소, 새 사진에 깊이 빠진 한국생태사진가협회 서정화씨가 창리 인근 논에서 찍었다는 장다리물떼새 번식 사진을 들고 방문하여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장다리물떼새가 우리의 땅에서 번식한다는 사실은 처음 관찰된 일로 생태학적 개념이 바뀌어 이제는 이 새가 겨울철새도 아니고 미조도 아닌 텃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찾지 못했던것인지 아니면 환경변화로 생태계의 이변인지는 장다리물떼새만이 알 일이다.

첫 촬영자에 의하면 창리 인근의 번식지는 개울이 흐르고 논이 있는 곳으로 겨우 못자리에서 자리잡은

모포기에 마른 풀을 화산형으로 모아 등지를 틀고 갈색에 흑갈색 점무늬가 무질서하게 찍힌 알을 4개 낳아 품고 있었다한다.

또 이 논에는 서너개의 등지가 있고 모두 8쌍 정도가 서식한다는 것은 집단성 번식 습성이 있다는 사실도 시사해 주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새들에게는 과거에 번식하지 않던 새들이, 번식을 시작하여 이변을 일으키는 일들이 더러 있는데 아무튼 어디서 번식을 하던 늘어 나기만 바랄뿐이다.

인간의 간섭이 도움이 안될 현장 답사로 갈등 하던 다음날 아침 2마리의 어린새가 태어 나왔다는 전갈은 이 어려운 시대의 반가운 새소식이였다. ♣



글·사진 李正雨

(삼육대학교수·동서조류연구소장)